

니체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법>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평온함이다. 진실은 기존 생각을 철저하게 의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확고한 근거와 철저한 내면의 성찰을 포기한 인식은 거짓이다.

“지금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네.”

니체는 어떻게 정신의 깊이와 문화의 기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했을까?

인류문화의 중심에 있는 많은 금기와 신념을 흔들어 놓은 철학자

1862년 18세에 가족의 종교적 전통을 의심함.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루터 교회 목사). 이후로 독자적인 자신의 철학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철학적 연구는 시도, 돌격 혹은 실험이다(운명과 역사): 끊임없는 의심을 옹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는 ‘믿음이 없는 상태’

“나침반과 안내자 없이 의심의 바다로 과감히 들어서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이고 몰락을 자처하는 일일 것이다. 대부분은 풍랑에 삼켜질 테고 소수만이 새로운 땅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단단한 육지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1865년 기독교를 버림, 니체가 동생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p.57

“더 힘든 쪽에 진실이 있다는 너의 신념에 나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묻고 싶구나. 교육받은 것, 서서히 뿌리가 깊어진 것, 친척들과 여러 좋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드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까? 아니면 습관과 싸우면서, 독립적 행보에 불안해하면서, 감정적 혼돈, 그레 양심의 갈등 속에서 외롭지만 언제나 진, 선, 미라는 영원한 목표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들까? 신관, 세계관, 구원관 안에서 가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할까? 진정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마음의 동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연구자에게서 평온, 평화, 행복을 얻고자 할까? 아니다. 우리가 연구자에게서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다. 그리고 진실은 가장 위협적이고 흉측할 터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겠다. 영혼의 치유가 예수가 아닌 가령 무함마드에게서 온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더라도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확인컨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 모든 진정한 믿음은 옳다.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을 갈망하게 한다. 그러나 믿음은 객관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데 어떤 발판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서 길이 갈린다. 영혼의 평온과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진실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연구하라.”

진실과 행복

-평온한 생각과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

평온한 생각은 연구자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 ‘진실’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진정한 연구로 이끌지 못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은 진정한 연구로 이끈다. 어떤 진실이든 있는 그대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째서 진실이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을 선사해야만 하는가? 진실과 편안함 사이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없다. 진짜 진실이라면, 인류의 모든 생각과 삶의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도 된다.

위대한 철학자들조차도 인류의 정신을 높이 떠 받드는 것을 ‘진실’이라고 느끼게 하는 유혹에 굴복했다. 플라톤의 진선미 삼위라는 관념 뒤에는 인간적 소망과 욕구가 숨어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상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먼저 영원하고 완벽한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환상, 모든 사고 오류를 버리는 것이다.

“나의 지인들은 나를 고향 잃은 신사라 부르리, 그러나 나는 고향 없는 독수리처럼 자유롭다.” (p.59. 니체가 15세에 한 말)

-진정한 연구가는 평온에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진짜 진실은 자유로운 연구, 질문, 의심, 파괴, 재건에 있다.

“신념은 진실의 적으로, 거짓보다 더 위협하다.”

연구의 목표는 확고한 신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념을 가지려는 욕구는 절대적 지식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욕구다

Jay) 동의한다

-철학적 사유는 결코 끝나지 않는 실험.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제를 선택하는 철학자는 신의 존재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보다 안전한 길을 간 것이다. 자유로운 연구자는 ‘위험하게 생각해야’ 한다.

“진실이 큰 해를 끼치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지식의 붕괴가 존재의 기본 특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진실’앞에서 얼마나 걸딜 수 있느냐에 따라 정신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쇼펜하우어와 니체: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존경했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추구하는 고통과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이 주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jay) 평소 좋아했던 두 명의 철학자들이 서로를 존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웠다. 전통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 생존하던 당시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철학자에 대한 애정 때문일까? 이 계보는 키에르케고르에게도 이어진다.

희망에게 행복한 죽음을

-형이상학의 완전한 파괴: 니체가 보기에는 세계, 문화, 철학, 정신에 대한 모든 형이상학은 쓸데없는 것

“전쟁이다. 그러나 화약과 화염이 없는 전쟁이다. (.....) 모든 착오는 얼음 위에 놓일 것이다. (.....) 모퉁이 하나를 지날 때마다 ‘성인’이 얼어 죽는다. (.....) 마지막으로 ‘믿음’, 이른바 ‘신념’이 헐벗고 ‘연민’ 또한 차갑게 식는다. 거의 모든 ‘물자체’ Ding an sich*(감각에서 독립된 사물 또는 사건. Noumenon, 플라톤의 Idea)가 온다.”

(Ecco Homo, Menschliches)

*누메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성 너머의 현실

-현상 세계의 핵심에 영원히 순결한 존재가 있다는 생각(형이상학, 종교적 신념, 신비 체험, 철학적 논리 등)은 평온을 주는 생각법의 결과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계, 자연의 위력과 삶이 개인의 소망에 반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정신은 실제 세계와 정반대인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된다.

죽음이 있는 세계와 죽지 않는 세계

신은 우리 편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보답을 받고, 도덕적 율타리와 행동이 유의미하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형이상학적 세계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연하고 무작위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영원한 논리와 합리성이 하나로 합친다.

형이상학적 주장의 속고

-인간은 실제 세계를 떠날 수 없다. 진실을 알고자 해도 이 세계 너머를 볼 수는 없다. 이 세계 너머를 보는 대신에 ‘진실을 추구하는 질문’을 숙고함.

*이 사상은 어디서 이것이 진실이길 바라는가?

희망했던 진실이 아닐까? ‘신은 선하다’라는 명제. 선한 신은 진실인가? 동기인가?

*자신의 기본 지식을 완성하기 위해 이런 ‘진실’이 정말로 필요한가?

형이상학적 세계는 알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형이상학적 세계가 없다면 자신의 삶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위로와 도움 대신에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것이다.

인간의 능력과 성장을 제한하는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다. 쓸모 없는 진실은 해롭다.

형이상학적 세계는 위로를 얻기 위해 발명된 것.

-심리학적 철학자로서의 니체 (프로이트는 니체를 칭송함)

형이상학의 도움 없이 세계를 해명하고 인간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천사와 악마, 죄와 벌 없이 인간의 행동을 독려하는 원동력을 찾을 수

“그 힘이 도끼가 되어 인간의 형이상학적 욕구를 뿌리까지 찍어낼 것이다.”

인간의 감춰진 욕구: 권력에의 의지 Willen zur Macht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는 욕구,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의 표현. 철학자들은 각자의 비전에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것(폭군의 욕망)

올림포스 신화: 그리스인들은 존재의 충격과 두려움을 알았고 느꼈다. 살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다.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위로를 추구하는 사상

다윈이 보여준 세계를 인간의 삶에 연결시켜 사유한 사상가(저자의 해석)

신이 필요치 않은 세계에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 신은 죽었다: 모든 것을 신의 이름으로 이해되었지만 그것은 끝났다.

(광인 중에서) 인류가 맞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니체의 진심 어린 걱정

“밝은 오전에 등불을 켜 들고 광장을 달려 나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던 광인에 대해서 그대들은 들은 적이 없는가?(.....) 신이 어디로 갔을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주마!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닦아 없애도록 걸레를 주었을까? 이 지구를 태양의 사슬에서 풀어놓음으로써 우리는 무슨 것을 저질렀는가?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진 않은가?(.....) 텅 빈 공간이 우리를 감싸고 있진 않은가?(.....) 살해자 들 중의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위로할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상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마주한다. 희망의 종말은 비극이 아니다.

니체에게 자유란 단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했다.

신은 죽었고 형이상학적 세계는 가치를 잃었으며 모든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적 세계는 부서졌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새로워져야 한다.

인간 뇌의 편향

인간의 뇌는 인지적 편의성을 선호한다. 진실처럼 느껴지고, 좋은 기분이 들게 하고, 쉬워 보이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긴다. 좋은 게 진실처럼 느껴진다.

반쪽 진실, 대체 진실이라는 신경안정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원하는 감정상태에 복종하는 ‘노예 같은 진실’만을 원하게 되고, 판단과 예측에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현실은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일깨워주고 증명하지만, 인간은 편안함과 이상에 머물게 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한다. (서구 사회 결혼에 대한 희망과 현실- 이혼율이 미국 53%, 독일 46%), 여행에 대한 기대, 과거의 추억, 자신인 이타적이라는 생각 등).

진실은 불편하고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고통은 진실의 증거일 때도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

환상으로 방패막을 삼는 평온한 생각법은 충들을 피해 가도록 돕는다.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법은 아무 것도 피하지 않고 희망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처할 때 훨씬 더 집중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 (강한 자기책임).

뇌는 뇌를 기본 좋게 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간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주는 것이 더 진실 같다.

결정을 할 때마다 자문하라. “나는 어떤 진실을 선호하게 될까?” “어째서 나는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고 왜 이쪽을 선택할까?”

평은 욕구를 극복한 니체

20대부터 니체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려 면서도 지칠 줄 모르게 일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몸이 가장 약했던 시기에 염세주의자로 살기를 그만두었다. 자기재생의 본능이 빈곤과 낙담의 철학을 금지시켰다.”

영원회귀: 니체 생각법의 명확한 틀

이승의 삶 외에 다른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적 삶은 마치 영원처럼 지속된다.

“당신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삶은 전혀 새롭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쾌락과 생각과 한숨, 그리고 언급조차 어려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존재의 모래시계는 영원히 계속해서 당신을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 삶을 다시 살고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하고자 하는가?”

모든 탈출과 위로의 포기: 이 물음에 대한 긍정의 답은 ”도달할 수 있는 긍정의 최고 형식”

최종 목적지 없이, 지평선 없이, 무한히 팽창한 단 하나의 현실, 물질적 삶만 남은 것.

이 삶을 다시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누리려는 인간의 끝없는 갈망이 끝났음을 의미.

희망과 위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종류의 행복, 의미, 아름다움, 사랑을 발견하는 것.

니체의 깊은 사고 구조: 쉽 없는 역동, 지속적인 타오름과 열정

-니체의 생각법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파괴적 힘과 건설적 힘 사이의 끝없는 전투에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연진화의 역동과 일치한다. (자연에는 휴식도 평온도 없다)

인간의 이성은 평온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신의 음식은 불화.

Cf. 유태 낭만주의,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추구했던 그리스 스토아학과

활동은 깨어 있음과 살아 있음.

“그렇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불꽃처럼 탐욕스럽게 빛을 내며 스스로를 집어삼킨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버리는 모든 것은 숯이 되니 나는 불꽃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 없이 생각하고(육구와의 전투) 한편으로 완전한 평온과 안락의 환상을 잡는다. 양분된 내면

니체의 내면은 찢기지 않음: 마음의 평온이란 삶에 정거장이 없을 인정하는 것. 생각도 멈춤이 없는 것. 이성은 확정된 신념과 완벽한 지식이 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교훈

본연의 삶에서 멀리 떼어 놓는 자기 위안적 믿음과 탈출 환상을 자신 안에서 찾아보라.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때문에 뭔가를 믿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위로와 평안에 대한 모든 희망과 환상을 포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jay) 독자적 사고에 관한 니체의 철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전통적 사고, 무비판적 사고에 관한 지난한 의심과 비판을 통해 걸러진 것이다. 특별한 점은 니체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열정이 넘치는 직설로 말했다는 점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은 내가 만족할만한 비판의 시험대를 거쳤을까? 니체를 읽는 동안에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생각이 멈추는 지점은 평온함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